

# 전주와 서천 사이 문화예술로 연결

▶ 전통문화전당 교류협력 프로그램 '햇·하트'

‘뜨거운 심장’을 가진 두 예술 단체의 교류를 통해 전통 무용과 타악을 한 무대에 볼 수 있는 이색 공연이 초겨울 밤을 달굴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충청남도 서천 문예의전당 공연장 상주단체 사회적기업 타악예술단 '흔'을 초청해 상주단체 교류협력 프로그램 '햇·하트'를 오는 25일 오후 7시 전당 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리와 함께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하늘과 땅을 주제로 한 1부 공연 '토음천무'는 ▲1장 서천공작부채춤 '바람의 멧', '모시꽃 피다'(10분), ▲2장 연등춤(10분), ▲3장 불꽃투혼(10분)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2부 '모리와 함께' 발표회는 ▲인사말 및 소개(5분), ▲발표회(30분), ▲수료증 수여(10분) 등 총 90분 간 진행된다. 특히 충남 서천의 대표적인 한산모시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서천 부채장의 공작부채를 활용한 남

녀 무용수의 춤과 타악주자들의 모듬북 퍼포먼스가 한데 어우러진 광경은 관객들을 한껏 매료시킬 전망이다. 관람을 통해 충남 서천의 문화를 느꼈다면, 2부에서는 5월부터 시작한 무료난타, 풍물교실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자리로 40여명의 수강생들의 멋진 전통 타악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의미로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명의의 수료증도 수여될 예정이다.

타악예술단 '흔'의 '토음천무' 풍물교육 '모리와 함께' 등으로 구성 공연은 25일 전당 공연장서



김대기 전통예술단 훈 대표는 "토음천무는 서천의 특색을 각 장의 춤과 음악으로 빚어 우리의 열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전통과 국악의 도시 전주에서 공연을 선보이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태수 원장은 "'햇·하트'는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우수한 공연을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고 '모리와 함께' 발표회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한껏 선보여 성취감이라는 열매를 얻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지역민들이 공연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의 관람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홍보 마케팅팀 공연장상주단체 담당(063-281-15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 “여명숙, 게임산업계에 혼란 발언 유감”

문체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시스템 없다” 발언 관련 “사실과 달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이 한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체부와 여 위원장은 여 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를 언급한 이후 갈등을 빚고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위암스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의 도입한 것”이라며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의 대상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해,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자체등급분류 결과 게임위 통보기간 단축(1개월→5일)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인터뷰 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여 위원장은 이날 게임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7년 8월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게임위에 참여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당시 여명숙 위원장이 총 20명을 추천해 이 중 2명(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1명 포함)을 협의체 구성원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 협의체 회의 시에는 게임위 사무국 직원 2~3명이 배석하는 등 규제 관련 논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 위원장은 또 인터뷰에서 “자꾸 증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태블릿 피시(PC)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정황, 등장인물들, 타이밍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뉴스1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故 하반영 화백 ‘미술의 무한한 언어展’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에서는 박물관의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 ‘미술의 무한한 언어’라는 주제로 故 하반영 화백의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반영 화백은 7세 때 수묵화를 그리기 시작하여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 문자화 등을 섭렵하고 평생에 걸쳐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작품으로 동서양의 융합을 시도했으며, 개인전 50회, 해외초대전 10회, 국제전 150여회를 개최하는 등 ‘동양의 피카소’로 불렸다. 이번 작품전은 93년간의 생애동안 화백이 느꼈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예술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로 하반영 화백이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군산시에 기증한 작품 중 ‘비구니에 든 석류’, ‘태양’, ‘단감’, ‘안개 낀 바다’, ‘군산’ 등 2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하반영 화백의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군산시민과 관람객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었다”며 “故 하반영 화백의 작품을 통해 미술의 다양성과 예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핀곤 기자

### 밤아실 夜한구경 야(夜) 구경가자! 젊음의 거리로~

**공연프로그램**

- 디제잉쇼 (박시이즈크루)
- 비보이 (소울인터즈)
- 판타스틱 포스댄스컴퍼니
- 타타-CIDA (이워)
- 락밴드 (아직)
- 사물놀이 (마시중)
- 페들리스 (백산고(단소))
- 가내수공예 (부안아줄(밴드))

**체험행사**  
플리마켓, 먹거리

2017. 11. 18.(토) 15:00-20:00  
주관: 부안군 부안읍 군청앞마당위원회